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돼야

남부경제권 활성화 위해 꼭 필요
이용섭 광주시장·권영진 대구시장
광주·대구 국회의원 힘 모으기로

수도권 집중구조 분산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남부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광주~대구 달빛내륙 철도 건설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3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달빛 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건설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구조 분산을 위해 지역발전을 통한 신경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이어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통해 낙후지역의 발전기회를 확보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을 연결한 '남부경제권'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남북 위주의 철도망 구축에서 탈피하고, 동서축을 중심으로 한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통해 지역 간 균형있는 국가 철도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박사는 또 "1~3차 국가철도망계획에서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달빛내륙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제성보다는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측면이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 부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패널들이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동서축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문화·관광교류 측면의 파급효과 등 남부 경제권 형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달빛내륙철도 경유 지방자치단체장, 광주와 대구지역 국회의원 등도 참석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오는 2021년 6월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달빛내륙철도의 신규사업 반영과 사업의 조기 현실화 등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돼 주목을 받았다.

이날 참석한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광주와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모두 "경제성이나 수요 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의 정책성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내년 6월에 확정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되고 조기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203.7km 구간을 고속화철도를 통해 최고 시속 250km로 달려 영호남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조원대의 대형 국책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 영호남 상생공약인 이 사업은 최근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건설 필요성이 꾸준히 커지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목포대학교 재학생 2명이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무안군 목포대 도림캠퍼스 광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친 학생·교직원 800여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병원발 코로나19 무섭게 확산 광주·전남 의료체계 붕괴 우려

전남대병원 코호트 격리 이어

화순전남대병원 암병동 폐쇄

목포기독병원 일부 진료 중단

코로나19의 11월 재확산을 몰고 온 전남대병원의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에 이어 화순전남대병원과 목포기독병원에서 의료진이 확진되면서 일부 병동이 폐쇄됐다.

〈관련기사 2면〉

확진자 발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전남에서는 순천과 광양, 여수에 이어 목포시와 무안군 삼향읍(도청 소재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된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각각 6명(전남대병원 관련 5명), 19명이 발생했다. 광주에서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총 35명으로 늘었으며, 총 누적 확진자도 593명에 이른다.

특히 전남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전남 코로나 19 확진자는 지난 15일(일) 11명, 16일(월) 15명, 17일(화) 15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18일(수) 오후 6시 현재 19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순천 등 동부권 확산세가 특히 우려된다. 순천에서는 이날 발원지의 한 마을에서만 확진자

8명이 나오는 등 하루동안 13명의 확진자가 생겨났다.

전남대병원에 이어 화순전남대병원과 목포기독병원이 감염병에 뿔린 점도 빠아프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서는 이날 오전 소아암 병동 간호사(전남 285번·광주 남구 거주)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동이 폐쇄됐다. 방역당국은 간호사 감염 경로 추적과 함께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다. 목포기독병원도 응급실이 폐쇄됐고 진료가 중단됐다. 응급실 간호사(전남 283번)가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전남 방역당국은 환자와 의료진 등 1533명에 대해 긴급 검사에 들어갔다. 기독병원 간호사를 포함해 목포에서는 전남대병원 관련 코로나 19 확진자가 9명으로 늘었다. 전남대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여성과 그의 가족, 기독병원 간호사, 목포대 학생 등이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의료진 확진으로 순천중앙병원이 코호트 격리됐다.

지역 대형 병원 의료진들이 잇따라 코로나 19에 감염되고 진료 등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감염병 온상으로 전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와 비탄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사흘 동안 목포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10명을 넘어서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전남도는 19일 0시를 기해 목포시와 바로 옆 무안군 삼향읍, 오룡지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담화문을 내고 "지역 전체로 n차 감염이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확산세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최대한 빨리 감염 고리를 끊어야 할 상황으로 도민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 국면"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코로나 19와 감기 증세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침,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증상이 있는 경우 회사 출근 등 외부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검사비는 전액 지원하니 증세가 나타나면 보건소를 찾아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구례 수해 100일 - 주민, 막막한 겨울나기 ▶6면
리더스 아카데미 - 박찬일 셰프 '추억의 맛'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중한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5·18 역사적 사실 부정하면 처벌 가능"

추미애 법무장관 국회 답변

소병철 의원 "왜곡논의 자체가상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공식적이고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이 법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예술 학문적 연구, 학술 또는 보도 등의 경우는 다 제외하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만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5·18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맞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그런 위험성을 야기할 때 처벌하는 입법례가 독일에도 있다"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 5·18이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단순히 다른 견해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잔성, 반대라기보다는 의원님이 제기한 우려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도 9월 19일 날 광주 5·18 국민묘지에 가셔서,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를 못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바 있다"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과거 유대인에 대한 독일 나치학살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을 직접 겪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논의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논의를 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법사위는 토론을 거쳐 이 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외에도 내달 출소하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겨냥해 재범 위험이 높은 전자장치 부착자의 행동단절을 제약하거나 약물치료를 허용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IT, 벤처,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기업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 인기!**

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용자 가능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KAIT 한국자산신탁 사설 삼일건설 사설 삼일루체아

모델하우스 오픈중
T.372-6666

모델하우스 : 광주 서구 마곡동 165-14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정) 및 근린생활시설 기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 본 홍보물의 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홍보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에 사용된 사진, 일러스트, CG 등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사업주(제1지주)가 현재 및 미래 기간에서 발표할 내용을 참조한 것으로 관련 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임대인) 등 청약당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위 용지에 따른 소지자 피해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소비자의 용이한 권리보호를 위해 청약계약(계약서)을 사용합니다. ※ 청약계약서 미비 미비사항은 해당된 사실인므로, 추후 사업 진행에 따라 입주 계약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